

강진군, '아이·군민 모두 행복한 지역' 조성 성큼



맘편한센터 조감도.

강진군이 강진읍 도시재생 사업으로 아이와 군민이 행복한 지역 건설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읍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어울림센터와 맘편한센터가 지난해 말 잇따라 착공, 공사 가 한창이다.

어울림센터는 지역주민 역량 강화, 주

민 간 공동체 형성, 영화관과 청년 창업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맘편한센터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 시설, 청소년 쉼터로 기능해 강진군민의 복지 가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울림센터는 강진읍 동성리 192 일 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전체면적

어울림센터·맘편한센터 신축...복지 향상 등 기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연령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3천728.30㎡ 규모로 2023년 준공 예정이 다.

지상 1층에는 건강증진실, 헬스케어 실, 공유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조성하고, 2층에는 분임토의실, 창업준비실, 상담실 등이 들어서 청년 계층과 평생 학습을 지원한다. 3층은 강진군민의 오 랜 소망이던 영화관이 들어서고, 4층은 요리 교실로 활용된다.

어울림센터가 준공되면 군민 친화형 공간으로 다양한 복지와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게 되며, 강진읍의 랜드마크 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맘편한센터는 모든 세대에 열린 가 족 친화적인 생활시설로, 설계 초기부

터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참여단과 주민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지상 1층에는 육아돌봄지원센터, 커 뮤니티 존을 조성해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보육 시설과 특성화 프로그램실로 활용한다.

2층에는 청소년실내체육시설, 어린 이문화체험을 위한 실내놀이존, 가족형 도서관이 운영되며, 3층은 청소년 동아 리실·스터디룸, 평생학습장 및 시니어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목적생활공간으 로 꾸며진다.

맘편한센터는 아동, 청소년, 부모, 노 령층에 대해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 개 발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부처 연계



어울림센터 조감도.

사업을 활용하는 등 주변 학교 및 공공 기관, 주민 조직과 연동하는 프로그램 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어울림센터와 맘편 한센터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 여건 변화에 맞춰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신뢰받는 주민, 이용자 중심의 포괄적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운영될 방침

이라며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를 충족 시켜 군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축된 시설물에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활용과 프 로그램 운영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도 록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정영록기자

해남군, 전국 첫 '캠핑카 시티투어' 운영한다

오늘부터 KTX 목포역서 대여

1일 4만원...취사도구 추가비용

해남군이 캠핑카를 이용한 시티투어 여행상품을 운영한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으로 가는 꿈카'는 캠핑카를 대여해 지정 관광지를 여행하고,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핑카를 이용한 시티투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여행상품으로,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인 '이을 프로젝트'에 선정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7천만원을 확보했다.

KTX 목포역에서 로디 캠핑카를 1일 4만원에 대여할 수 있으며, 오시야오 오토캠핑장 등 3개소의 야영장 내 전용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로디 캠핑카는 기아차 레이를 캠핑 카 형태로 만들었으며 2인승이다. 취 사용품 세트나 캠핑의자 및 테이블 등 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대여할 수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캠핑카를 활용해 지정 관광지를 여행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사진은 '해남으로 가는 꿈카' 캠핑카.

(해남군 제공)

있는 옵션도 있다.

꿈카 시티투어는 7일부터 개시하며, 카카오톡 채널에서 '꿈카' 또는 아이디 'kkumka'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예약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꿈카는 해남군 전용 캠핑카 시티

투어로 GPS기반의 앱 활용을 통해 해남 이외의 지역 체류 시에는 패널 티를 부여, 기존 이용료의 2배 이상 이 차량 렌트 비용으로 추가 결제되 기 때문에 꼭 해남 여행에만 이용하 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의 뛰어난 풍

경과 다양한 먹거리를 캠핑 관광을 통 해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 다"며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캠핑카 시티투어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관광객의 수요와 반응을 조사하 겠다"고 캠핑 여행상품 개발에 대한 의 지를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현대삼호중 "협력사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추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연계 오는 10월까지

유해요인 파악·개선대책 수립...안전사고 예방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이 정부기관과 손잡고 협력사 안전사 고 예방·무재해 작업장 조성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고용노동부, 안 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협력사 43개사(사내협력사 13개·사의

협력사 30개)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청서를 제출하 면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

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정을 받은 업체 는 산재보험료 인하(일부 업종), 보조금 추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현대삼호중공업과 협력사 사업주, 안 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향후 ▲위험성 평가 진행사항 모니터링 및 의견 청취 ▲현장점검 ▲인정평가 등을 순차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협력사가 수월하

게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표준·샘플을 제공하는 한편 방면 지도·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위 험성평가 인정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물론, 기 업 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대관 협력 관계를 단단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3월 고용 노동부로부터 지정장소 단장으로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등 안전관련 기관·단체 등 과 구성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참여 해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감축 활동 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군, 日 오부치 총리 마을과 우호교류 추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신안군은 "일본 군마현 나카노조정 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 념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 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상호 우호 교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한일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공동선 언은 1998년 10월 도쿄 영빈관에서 일 본을 공식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오 부치 내각총리대신 시절에 채택됐다.

오부치 총리는 과거 일본의 식민 지 배에 대해 사죄했으며, 국민들에게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당사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로 2000년 재임 중 과로사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외 국 정상 장례식에 참석해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한 한일 외교사에 의미가 있 는 인물이다.

박우량 군수는 "김대중-오부치의 공 동선언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 을 해 왔다"며 "오부치 총리의 고향인 나 카노조정에 우호 교류 의향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 배에 대해 사죄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영광군, 전남도에 농민 피해 보상 요구해야"

김강현 군의원, '강대찬' 품질 저하 관련 10분 자유발언서 촉구

김강현 영광군의회 의원은 "최근 개 회한 영광군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 해 '전남도의 무책임한 농업행정에 따 른 영광군 농가피해에 대해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 다.

10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신 품종 쌀인 강대찬은 전남도에서 전남 쌀 브랜드화를 위해 적극 권장해 농가 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했으나, 최근 소비자들에게 품질저하 논란에 휩싸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 다.

많은 수의 농가들이 신품종 강대찬 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품질에 대한 확 신 없이 오직 전남도의 반강제적·일방 적인 정책추진에 따른 결과 피해는 고 스란히 농가의 몫이 된다고 영광군 피 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전남도 에 요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강현 의원은 "세심하지 않은 농업 정책은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 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탁상행정으 로 그치지 말고 농민들을 위한 장기적이 고 섬세한 농업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광=김동규기자



호남권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접근·이익 공유' 설명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최근 자 원관 내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 전남지 역 연구기관·기업,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 (ABS)'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회를 개 최했다"고 6일 밝혔다.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고야 의정서 및 유전자원법은 2017년 8월 국내 에서 발효돼 시행 중이나 현재까지도 인 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나 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물 자원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남도농업 기술원,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목 포대학교, 마린테크노 등 전남지역 연구 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참석했다.

유강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 생물연구본부장은 "이번 나고야 의정 서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회를 통해 나 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나아가 국가생물주권 강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 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 도움이 되는 설명회, 상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겠다" 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버스킹' 오늘 개막

오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총 4회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는 6일 "2023년도 나주시 주민 제안 공모사업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빛가람 버스 킹'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버스킹은 7일 오후 7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총 4회에 걸쳐 빛가람호수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개막 공연 및 출연진은 색소폰&트럼 '이수열', 통기타 전문 버스킹 '유투'·이승

호, 대금 '한결후', 해금·소리꾼 이유진의 국악콜라보, 팝페라 '김아람', 싱어송라이 터 '김수진', 청년농부이자 전라도 사투리 트롯 가수인 '농수로' 등이다. JTBC 가수 모창 경연 프로그램인 히든싱어 이문세편 의 우승자인 가수 '안용기'도 출연한다.

임주호 빛가람동장은 "4만 동민들과 함께 즐기는 빛가람 버스킹 공연 행사 를 축하한다"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주민 공동체와 화합



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빛가람 버스킹 참여신청 및 관람 관 련 문의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061-3 33-3632) 또는 빛가람버스킹 사업 집행 위원장(010-2634-8411)으로 하면 된다.

채성균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은 "지난해 '흥이 나주'에 이어 올해는

'신이 나주'라는 테마로 빛가람 버스 킹을 추진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완 연한 일상회복에 맞춰 그동안 힘들고 지 쳤던 시민, 공공기관 임직원, 소상공인 들이 활력을 얻고 버스커들에게는 멋진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